

●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. (루카 5장 38절)

“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. 몇 번이라도 새롭게 하라. 내 마음이 새롭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.”

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. 첫째,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다. 둘째, 낡은 부대는 포도주를 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셋째, 새로운 것은 새것에 함께할 때 더 가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. 이치가 이렇듯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.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,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채워라.